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건설현장 폭염 대응 조치 점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권구형)은 7월 27일(월) 강원 춘천시 소재 건설 현장에 대하여 폭염 대응 조치 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장마 종료 직후 7. 24.(금)부터 매일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폭염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노동자의 온열질환에 의한 건강위험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지난 5월 구성하여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실시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날 점검은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확인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 ① 시원한 물 제공, ② 냉방장치 설치·가동,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부여, ④ 보냉장구 지급, ⑤ 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 ①(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②(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③(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구형 지청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온열질환은 노동자 모두가 노출된 위험요인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하고,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적극적인 작업 시간 조정 및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락 (033-269-3580)
		담당자	근로감독관	원해인 (033-269-3526)

